

CSES 연구총서\_3

#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린다

장용석 · 조희진 · 김보경 · 황정윤 · 이영동





## 머리말

새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의원 시절에 발의하였던 ‘사회적 가치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부문 배점이 30점으로 대폭 향상되는 등 사회 변화에 초석이 될 만한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3조 1항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보건복지, 노동권 보장, 사회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사회적 가치로 보아야 할지 모호하기도 하고,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사회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재분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등장으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사회적 가치를 기치로 하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NGO 등의 조직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운영 원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정부나 NGO, 기업과는 달리,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보완책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사회적 기업이 자본주의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전통이 뿌리 깊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10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정부 주도 하에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인건비성의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 정부 지원이 끊기면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2007년 40여 개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 수가 2018년 12월 현재, 2,089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는 또 다른 축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기업이 경영 역량 증진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도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기업에게 요구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정권별 국정과제, 학계에서 사회문제로 정의하는 아젠다, 미래사회 예측 보고서, 신문기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소득 및 주거 불안, 노

동 불안정, 교육 불평등), 사회적 위험(삶의 질 저하, 사회통합 저해, 사회구조 변화, 안전위협), 환경파괴(환경오염, 자원 고갈, 자연재해) 영역의 10대 사회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던 사회문제, 즉,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사회적 기업의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종합 지표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통해 도출한 10대 사회문제와 2015년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1,299곳의 소셜 미션을 매칭(matching)한 결과, 31%의 사회적 기업이 ‘노동 불안정’, 즉,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할 만한 사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가치연구원(舊 사회적기업연구소)의 <사회적 가치 서베이 2016>에 따르면, ‘노동 불안정’ 외에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소득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각각 5%, 8.1%, 5.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사회적 기업이 해결할 정도로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블루오션 시프트(blue ocean shift)이자, 그들의 사생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크리솔버(cresolver)로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변화, 사회적 가치를 측정·보상하는 제도의 변화,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시스템적인 변화 등 세 가지 전략이 요구됩니다.

본 연구는 다수의 저서와 학술논문, 사회적 혁신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분야를 선도해 주신 연구자분들과 사회적 기

업가분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본문에서 인용, 출처가 누락되었거나 표기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며, 그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舊 사회적기업연구소)의 지원 하에 지난 2년 여간 진행된 연구 모임을 바탕으로 축적시킨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장용석 외 저자 일동

Part I

새로운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에 접근하다

Chapter 01 지속가능발전의 시대: 新 사회문제의 등장 ..... 11

사회문제 영역(locus)의 변화 ..... 15  
: 경제 중심에서 사회, 환경과의 조화로

사회문제 대상(target)의 변화 ..... 18  
: 취약계층 중심에서 보편적 개인의 문제로

新 사회문제, 과연 무엇인가? ..... 21

Chapter 02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새로운 사회문제 분류가 필요하다..... 27

사회문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 ..... 29

-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과 지표들 30
- 역대 정권별 국정과제 35
- R&D 투자 흐름과 미래 트렌드 예측 38
- 학계에서 논의하는 사회문제의 양상 4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바라본 사회문제 ..... 46

세부 영역별 사회문제의 도출 ..... 54

Chapter 03 사회문제 해결,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 63

경제 영역 ..... 67

: 경제적 불평등

- 소득 및 주거 불안 67
- 노동 불안정 71
- 교육 불평등 74

사회 영역 ..... 79

: 사회적 위험

- 삶의 질 저하 79
- 사회구조 변화 83
- 사회통합 저해 86
- 안전 위험 89

환경 영역 ..... 92

: 환경파괴

- 환경오염 92
- 자원고갈 95
- 자연재해 97



# Part II

## 사회문제 해결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다

### Chapter 04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주체의 등장: 왜 사회적 기업인가? ... 101

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 103

- 사회적 기업,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사 103
- 영국의 사회적 기업: 자선(philanthropy)을 넘어 사회적 가치 증진으로 109
- 미국의 사회적 기업: 사명완수를 위한 영리 추구 113
-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116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그 역할과 특성은? ..... 119

- 사회문제와 괴리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분류 체계 119
- 인식조사를 통해 본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 123

### Chapter 05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다 ..... 133

사회적 기업, 어떤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나? ..... 137

- 경제적 불평등 영역: 노동 불안정, 소득 및 주거 불안, 교육 불평등 143
- 사회적 위험 영역: 삶의 질 저하, 사회구조 변화, 사회통합 저해, 안전 위협 151
- 환경파괴 영역의 사회적 기업: 환경오염, 자원고갈, 자연재해 163
-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사회적 기업의 한계 168

선진 사회적 기업, 어떻게 사회문제를 풀어가고 있나? ..... 172

-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173
- 안전 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177
- 소득 및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180
- 사회구조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182
-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사례 185
- 보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187

새로운 사회가치를 탐색하고 그에 도전하라 ..... 194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보상하라 ..... 200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확장하라 ..... 209

Epilogue 221

주 225

참고문헌 242

## 사회문제 해결, 누구의 책임인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주의의 개념 및 인식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 왔던 신자유주의<sup>1)</sup>의 효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에 한계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흐름이 현재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 전 세계 경제·사회의 흐름이나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의 답은 ‘아니다’에 훨씬 기울고 있다.

최근 들어, ‘자본주의 4.0’, ‘착한 자본주의’ 등의 용어들을 신문 지면이나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나 시장, 어느 한 주체의 역할만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 4.0’, ‘착한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장, 각각의 운영 원리를 혼합함으로써 두 영역 간의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sup>1</sup> 이러한 새로운 시장운영 원리들이 이제 경제, 사회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얽혀 있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1) 1970년대 후반,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 통제하던 정부 주도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로 자본주의의 흐름이 전환되었다(장하준, 2014).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일자리 불안과 행복감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노동 불안정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규명할 수 없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겪고 있는,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도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과거 취약계층에게 국한되던 사회문제는 이렇게 일반 개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층, 소수계층 등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더 이상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경제가 허물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순식간에 퍼지는 등 피해의 범위가 ‘국내’에서 ‘세계’로 점차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 경제 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면서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sup>2</sup> 더욱이, 국민 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이를 홀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규모 감축’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무분별한 규모 감축 경쟁이 정부의 역량까지 줄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sup>3</sup> 그러다 보니,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사회적 요구나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뿐 아니라, 풍부한 자본과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과의 협력,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시민과의 소통에 강점을 지닌 시민사회와의 협력, 즉,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4, 5</sup>

최근 등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4.0’의 원리도 정부나 시장 모두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으로 이상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자본주의 4.0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강조해 왔던 협력적 거버넌스의 논의를 자본주의 측면에서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던 정부와 ‘수익성’을 추구하던 시장에서 서로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가 강조됨에 따라 ‘책임성’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 간의 융합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sup>6,7</sup>

그렇다면, ‘효율성’과 ‘책임성’ 간의 융합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발전 국가 시대를 경험하면서 각종 불평등, 양극화, 인권 유린, 환경 파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정부가 공공성, 책임성, 복지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불러와 경제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 ‘효율성’과 ‘책임성’의 두 가치가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경제 성장과 사회 정의의 동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sup>8,9</sup> 이처럼, ‘효율성’과 ‘책임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다.<sup>10</sup> 그러기에 상호 모순적이라고 여겨지던 가치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경제도 발전시켜야 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소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려면 ‘효율성’과 ‘책임성’,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의 융합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융합가치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시장의 논리(market logic)와 자선의 논리(charity logic)를 결합시킨 혼합조직(hybrid organization)을 증가시켰다.<sup>11,12</sup> 정부처

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13, 14</sup>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모두를 추구하는 융합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은 기업보다 더 책임 있게,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을 확대시킬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 자체는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강조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전담해 오던 정부 역량에 한계가 발생하자,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 수익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sup>15, 16</sup> 이에 사회적 기업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일환으로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더불어 사회문제를 해결할 핵심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한계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각각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사회적 기업은 이제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sup>17</sup> 기업은 여전히 자선적 기부나 봉사활동 등 이미지 제고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어 진정한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NGO 역시, 사회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NGO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NGO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NGO는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기부금 등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 더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해 주고, 이

들에게 재정적·비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40여 개에 불과하던 사회적 기업이 2018년 12월 현재, 2,089개로 10년 사이에 50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큰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sup>18</sup>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또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 기업의 존재감이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누구나 다 알만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이니 말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에 한정된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고용’, ‘노동’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사회문제가 존재한다. 과거부터 존재하던 ‘빈곤’,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문제 외에도 ‘소외’, ‘심리적 불안’, ‘삶의 질 저하’, ‘환경오염’ 등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미션이 ‘취약계층 고용’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게 된 배경 자체가 ‘고용 창출’에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다변화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예로, 경제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받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의 사회적 기업은 냉정히 말해 아직까지 사회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

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 영역을 사회문제와 연계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있어 중요한 점은 ‘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접근은 다음의 측면에서 기존의 논의와 차별화된다. 첫째, 국제사회와 국내 사회의 시각을 종합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문제들을 분류해보았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문제 지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과 사회문제 영역을 매치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해 냉철히 진단하고 이들이 지속가능하도록 대안을 찾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사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사회적 기업이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초점을 둔 전략보다는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는 점은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 전체로도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이 지닌 잠재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사회가 될 때,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사회 혁신도 가능해진다.

우리는 사회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회구조와 시스템, 나아가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지금의 문제 해결 방식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미래에 발생할 사회문제들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그래서 국민 모두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논의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